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산책 기획특집 4

임란의병장 梅窩公과 천재문인 香塢公

매와공

향오공



글 권오신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동사에서 士敏 先祖는 작전계획을 주로 내시는 지장으로, 梅窩公 先祖는 선봉장을 주로 맡았으며 동시에 梅窩公 先祖의 諱가 자주 기록되었음

梅窩公의 詩와 句

1. 향강서사 영남매 兄江書舍詠臘梅
 밤공기 서늘해져 잠자리를 바꾸었고
 강물 가득 밝은 달은 향기로운 매화를 비춘다.
 추운 날씨 세모에 선명한 그 빛깔은
 봄바람 받지 않아도 온갖 꽃향기를 따르게 한다.

2. 문옹의 詩 汶翁詩
 비쪽비쪽한 비위 형세는 다투듯 신기함을 드러내고,
 나무사이로 깊숙이 나르는 세는 손님에게 느리다고 알려 주네.
 신야 들판에는 어찌 이윤이란 늙은이의 쟁기를 내팽개치는가?
 상좌는 조용히 신선의 비단 바둑판을 대하고 있다네.
 맑은 모래 가늘게 구르는 건 물고기 헤엄치는 곳.
 안개 낀 버들 가버이 짙는 건 말을 땀 때라네.
 머리 굽혀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소매를 가다듬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다시 또 누구인가. <고대 나라 재상 伊尹의 고사를 읊은 漢詩>

3. 公山 會盟日의 느낌
 팔공산의 산색 가을빛이 새로운데
 우뚝 선 바람서리 몇 봄을 지났던가.
 만약 청구가 저들을 막을 수 있다면
 이르노라! 동국에 그 사람이 있었다고.
 <임란 의병들이 산세가 험하고 영남의 중심지인 팔공산에 진을 두고 작전을 폈다. 宣祖 29년 3월 3일 공산성에 모인 경주 의병장 매와공과 魯軒公 九思齋 權復始 공 등 13명과 영남 58개 지역에서 모인 의병장 422명이 1차 회맹을 가졌다. 이 詩는 첫 회맹에 앞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4. 金汶翁에게 보내는 글
 강가의 한 초가집에 인사는 폐지되고 없는데, 평소

내 마음 아는 친구로 그대 같이 어진 사람을 세상에서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매년 신선의 산장을 두드릴 때마다 오장이 술에 깨는 줄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와 허전한 창문을 대하면서 수도 없이 가고 싶다는 한탄만 부질없이 하였다.

이전에 문수 가에서 즐겼던 것은 무슨 일이었소. 인생살이는 마음에 맞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 세간에 무한한 청복으로 이 밖에 무엇을 추구하겠는가. 다시 날이 밝으면 옛 사람이 바람에 모자 떨어진 날로 이와 같이 좋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날을 맞아 술 한통, 나룻배 하나로 적막한 강가에서 서로 어울리는 게 소망 이다.

解題: 文翁(韻文)체의 글이다.
 고대 전국시대 楚나라 시인 屈原의 楚辭에서 九章 抽屈에 나오는 “아영도로 가는 길 그리도 먼데 하루 밤에도 이내 혼은 아홉 번이나 간다네!”를 인용한 글이다. 당시 조선 문인사회에선 屈原의 文翁(韻文) 일정한 韻字를 써서 지은 글, 詩)의 형식을 갖춘 글, 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규율이 있는 글로서 학문적 내공이 고수급에 올랐던 士大夫들이 즐겨 썼다.< 慶州府의 壬辰抗爭史, 東京邑誌, 梅軒實記, 慶州儒敎文化遺蹟 등에서>

대과급제 후 세상을 뜬 천재문인 향오공

매와공(梅窩公)에서 몇 대를 건너면 천재문인으로,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한 후손이 나왔다. 헌종(憲宗, 재위기간 1834-1849) 3년에 대과급제(大科及第)를 하신 천재문인 향오공(香塢公) 譚 瓊煥(1782-1836)이시다.
 향오공(香塢公)은 단종(端宗)사화(史禍)로 연일 대잡산에 유배되고 유배가 풀리고도 100년 금고형(禁錮刑)에 묶인 사정공(司正公, 譚 壽海 1410-1466)의 후손 가운데 경주(慶州)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와 병조 예조 정랑, 합천 영천군수를 지낸 龍峯公(韓 德麟)에 이어 두 번째 대과급제자가 된다.
 <다음호에 계속>

여주공 권현 삼부자 정려각 청양군 향토문화재 지정



23세 현 모소(충남 청양군 남면 구룡리)



여주공 정려각(청양 구룡리)

여주공(驪州公) 권현(權現, 추밀공과 23세)과 그의 큰 아들 양(諱, 1596-1657)과 둘째 아들 양(諱)의 정려각이 청양군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여주공은 대중회 권혁원 종무원의 13대조이다. 여주공(1576-1655)은 조선 역사상 가장 어지럽고 난세 중의 난세인 시대에 살았다.

임진왜란(1592)이 발발했고, 인조반정 후에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의 난(1624)이 일어났으며,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이라는 난리가 일어난 시기였다. 그야말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나날이었다. 여주공은 국가 임진왜란,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선조로부터는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서훈되었고 사란좌익공신(四亂佐翼功臣)에 책봉되기도 했다. 이런 공적을 바탕으로 고령과 남평, 신창, 금구 등 사현(四縣)의 현감을 지냈고 파주, 해주, 여주 등 삼목(三牧)의 목사를 지낸 바 있다.

여주공은 양촌 권근의 둘째 아들 지재공(止齋公) 권제의의 넷째 아들 안양공(安襄公) 반(鰲)의 후손이다. 안양공의 후손들의 묘소는 성남시 금도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산군 8년에 출생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총좌위 부사과(忠佐衛 副同果)를 지낸 21세 확(確)이 관직을 마치고 흥성으로 입향한 이후 후손들은 줄곧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임항조 확(確)은 두 아들 승(昇)과 빙(鵬)을 두었는데 여주공은 증 영의정 승(昇)의 넷째 아들이다.

여주공은 두 아들과 함께 부모님의 병환에 인분을 맞보면서 병을 살렸으며(嘗冀壽病)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드리면서까지(斷指和藥)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고 간호하였다. 부친께서 운명(1599)하신 후에는 피와 싸레기죽(日曝麩粉)을 먹여가며 3년간 여막살이를 하니 삼부자의 상복이 다 닳고 닳아서 입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국가에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효자였다.

이러한 삼부자의 효성이 조정에게 알려져 숙종 원년(1675)에 정려(旌闈)가 하사되어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산수동 묘소 입구에 삼부자의 정려각(旌闈閣)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은 청양군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정려각 옆에는 정려각과 400여년을 함께하고 있는 거목 느티나무가 서 있다. 이 느티나무는 정려각과 400여년을 함께 하고 있어서 후손들은 이 느티나무를 마치 현조의 위엄으로 여기며 궁지와 자랑거리로 생각한다.

이 느티나무는 천 가지 만 가지로 가지가 뻗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후손들 또한 느티나무처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뻗어나가는 모습이 느티나무를 많이 닮은 듯하다.

후손 중 37세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2명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 권진웅(權鎭雄)씨는 부장판사와 지원장을 역임하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한 명은 권순규(權純圭)씨로 2007년 10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현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7세손 권태순(여, 權泰純)씨는 미국 매릴랜드주립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으로 알려져 있다.

권순태씨는 수원에 거주하는 권혁원(대중회 종무원)씨의 5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삼성전자인도체 연구소 공정개발 1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급년 6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재는 부부간에 뉴욕 소재 IBM사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기사제공 권혁원 종무원, 정리 편집국장 권행원>

주물 제조 전문기업



용해로



자동차용 프레스형 주물, 기계부품·선박부품 등 주물 제조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34 ·연락처: 054-751-8822 ·FAX: 054-751-8184

주식회사 대산금속 대표이사 권영훈

회사전경